

2015년 지방직 9급 C책형 해설

제공 : 유두선 교수

1. ① 허구헌 -> 허구한, 기본형이 '허구하다'이다.

정답 ①

2. ① 굳다 - '굳는다'가 가능하니까 '동사'
② 주어 '성격이'에 호응하니까 '형용사'
③ 새롭다 -> '새롭는다'가 되지 않으니 형용사
④ 아프다 -> '아프다'가 되지 않으니 형용사.

정답 ①

3. 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양쪽 구조가 동일해야 하는데 바르게 고쳐졌다.
② '불러졌다'는 이중피동이므로 '불렀다'로 바르게 고쳐졌다.
③ 마음씨가 좋은 것이 할머니인지 손자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④ '에게'는 사람과 동물에게만 쓰인다. '에'로 바르게 고쳐졌다.

정답 ③

4. ①, ③, ④는 그대로 두어야 하고 ②는 바르게 고쳐졌다.

정답 ②

5. ① '많이'는 어색하니 삭제하는 것이 좋다.
② 상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니 '과장님'은 적당하다. 회사에서는 모두 높이는 것이 바른 예절이다.
③ '품절이십니다'는 높일 필요 없는 것을 높이고 있다. '품절입니다.'
④ 저희나라 -> 우리나라

정답 ②

6. 중심 내용은 경험론자는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각 경험을 중시한 내용은 ③번이다.

정답 ③

7. 아내는 양반을 몰아세우고 있다. ‘외경’하고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8. ④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①은 마지막 줄에 ② 심청의 말을 통해 사건 상황을 알 수 있다. ③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심청이의 효심을 볼 수 있다.

정답 ④

9. 고독한 상황에서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① 사별의 한 ② 삶의 어려움을 노래 ③ 고독한 상황을 피꼬리에 붙여 노래함 ④ 이별의 한

정답 ③

10. (가)의 끝이 기술공학적인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자는 내용이고 (다)는 ‘기술적 질서’로 시작되니 (가) 뒤에 와야 한다. (다)의 뒤가 중앙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한다고 했고 (나)는 ‘그러나’로 (다)의 내용과 다른 중앙 집중적인 기업문화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나)-(라)이다.

정답 ③

11. ①, ②, ③은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④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다름이란 뜻이다.

정답 ④

12. ① 동기상구(동성상응) -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이 모인다는 말

② 화이부동 - 남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 않음

③ 동성이숙 -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을 이르는 말

④ 오월동주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②

13. ㉠ 종류별로 묶어 두는 것은 분류(分類)임

㉡ 쓰레기는 분리(分離)하여 수거함

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구분(區分)이다.

정답 ①

14. ‘곰살궂다’는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뜻임

정답 ③

15.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임시 변통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정답 ②

16.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는 것은 ‘부서지다’로 쓴다. ‘부쉬지다’는 틀린 표기다.

정답 ④

17. ‘나이’와 연세(年歲)는 서로 발음이 다르다. 이럴 때는 대괄호 []를 쓴다.

정답 ②

18. 몽타주는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고 했지,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정답 ①

19. 노동시장을 생산물 시장과 대비하여 비경제적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③

20. ①번은 9째 줄에 있다.

②번은 마지막 줄에 있다.

③번은 17째 줄에 있다.

④ 감독조는 이용하고 있으니 해체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정답 ④

총평

이번 지방직 9급은 작년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되었다. 문법 7문항 어휘 2문항 독해 4문항, 소설 4문항, 한자와 한자성어 3문항이 출제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독해가 작년보다 적게 출제되고 소설이 4문항이나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문학을 등한시하던 수험생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한자와 한자성어도 3문항이 출제되어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문법은 문항 수도 줄었고 맞춤법 중심으로 출제되어 어려움이 없이 해결했을 것이다.

이상의 경향으로 볼 때 내년 수험생들은 지나치게 문법에만 치중하지 말고 모든 영역을 골고루 공부해야 할 것이다.